장단군 점원리 주부공 이하 7세 춘향
추밀공파 정헌공 · 화산부원군계 25世

▲ 주부공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4월 3일 일요일 10시 경기 장단군 군내면 점원리 조로산照老山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 화산부원군계 시조후 20세 주부공主簿公 섭攝의 5대손 봉열대부奉列大夫 전생서주부典牲署主溥 휘 덕양德養 이하 7세 15위의 춘계 향사享祀가 봉행되었다. 최존위 주부공 덕양과 영인令人 청주한씨淸州韓氏, 그 장자 생원공 제경濟經과 배위 파평윤씨坡平尹氏 및 함평이씨咸平李氏, 그 계자 생원공 세녕世寧과 초계정씨草溪鄭氏, 그 장자 첨지중추공僉知中樞公 구언龜彦과 숙부인淑夫人 진주유씨晉州柳氏, 그 장자 도途와 배 사천목씨泗川穆氏, 그 계자 석헌錫憲과 전주이씨全州李氏, 그리고 그 계자 동수東壽와 배 전주이씨全州李氏, 이상 7세 15위이다. 후손 참제자는 50여 명이었다.

이곳은 임진강 북안의 민통선 지역 내이고 6·25전쟁의 참화를 겪는 등으로 수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왔다. 이날의 제물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그 종가에서 장만하여 트럭으로 운송해 민통선인 임진강을 도강해 들어갔으며 권정택權貞澤 종회장이 행례를 주도하였다. 6·25사변 후 이 지역은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여 고양시 일산의 종손宗孫 권이현공가權彝鉉公家에서, 그 집 뒤 언덕에서 제물을 진설하고 망향제望鄕祭를 행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 '7·4공동선언' 후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이 허용되면서 매년 한식일寒食日을 정일로 하여 묘제墓祭를 받들어 오다가, 최근 들어 한식일이 선대의 향사와 겹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정일을 양력 4월 첫째 일요일로 고쳐 고정하였다. 향사의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 주부공
초헌관 : 권경택權暻澤
아헌관 : 권경택權敬澤
종헌관 : 권영길權寧吉
축관 : 권영섭權寧燮
집례 : 권정택權貞澤
봉향 · 우봉작 : 권성안權成顔
봉로奉爐 · 좌봉작 : 권광안權光顔
우전작右奠爵 : 권명택權明澤
좌전작 : 권동안權東顔

• 생원공
초헌관 : 권경택權暻澤
아헌관 : 권명택權明澤
종헌관 : 권영철權寧哲
축관 : 권이창權亨昌
집례 : 권정택權貞澤

향사를 끝내고 예년과 같이 총회가 열렸다. 금년은 임원의 3년 임기가 만료되어 새 임원진을 선출해야 하였다. 권정택 회장이 경과보고를 마치고 임원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회장단의 재임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권정택 회장과 권명택權明澤 부회장, 권섭택權燮澤 총무가 유임되었다. 그밖의 임원은 회장단에서 인선하도록 위임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종중규약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폐회하였다.

<주부공종중 제공>

고양 동일산 성석동
창수공종중 정기총회 및 임원 개선

3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 묘역하의 재사에서 추밀공파 시조후 19세 광흥창수廣興倉守 휘 억憶의 창수공종중이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및 선조에 대한 묵념이 있고 권병홍權炳洪 공동대표가 개회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다. 경과보고에서는 2010년도의 수입 지출내역이 간략히 보고되었다. 2011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상정되지 않았다.

임원 개선에 앞서 정관 내용이 개정되었다. 회장 선출을 참석 인원의 무기명투표로 하던 것을 종무위원회에서 심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하였다. 그리고 회장은 향후 2년을 더 공동대표 3인 체제로 할 것을 결의로 하여 통과시켰다.

공동대표는 송화공계에서 1인, 초루공계에서 1인, 수은공계에서 1인을 내기로 하고, 종무위원은 송화공계 4인, 초루공계 4인, 송파공계 3인, 수은공계 3인, 별좌공계 1인, 석주공계 1인으로 하여 모두 16인으로 하며, 감사는 초루공계에서 1인, 수은공계에서 1인을 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공동대표 3인은 송화공계의 권영건權寧建, 초루공계의 권훈權勳, 수은공계의 권오균權五均씨가 선임되었다. 종무위원에는 별좌공계의 권오흥, 송화공계의 권영홍 · 권경헌 · 권병관 · 권주석, 송파공계의 권오선 · 권혁태 · 권영걸, 초루공계의 권후식 · 권영회 · 권병성 · 권병돈, 수은공계의 권오섭 · 권혁빈 · 권혁준씨 등이 선임되고 감사에는 초루공계의 권병돈씨와 수은공계의 권혁주씨가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된 건은 중산힐스와의 성석동 종중토지 임대의 연장 재계약 문제였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격론 끝에 중산힐스와는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되었는데 다시 발의가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사진 · 글 權炳逸>

▲ 창수공종중 총회에서 권병홍 대표가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능동칼럼

정신의 부富

權 琪 奉
편집고문

많은 사람의 공통적 관심사는 언제나 돈과 명예이다. 이것이 사실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명제요 전고의 우선순위이다. 직장인은 연봉에 관심이 높고 집이 없는 이는 내집 마련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 가진 자도 보다 크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루고자 분망하여 겨를이 없다.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너나없이 돈과 명예가 절실하다. 또한 모두가 건강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상에는 건강보조식품과 각종 운동기구가 넘쳐난다. 돈과 명예에 건강이 있으면 만사가 무소불능無所不能이다. 다행히 이를 갖추어 가진 이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한 확신은 없어 보인다.

반면 자고 이래 성현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으로서의 노자나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의 관심사는 사실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성현이 관심을 갖는 바는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서의 백성이다. 백성은 그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부상하여 자력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자 등으로 뒤섞여 구성되는 무리이다. 이러한 백성이라고 다 선량한 것은 아니다. 제각기 욕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내달렸지만 소기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불행에 빠진 무리일 뿐이다. 성현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과연 구제하고 구원하였는가. 성현이 그들을 구제할 수 없다. 성현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하고많은 불행과 가난은 상존하겠는가. 국가가 부강해도 가난과 불행은 언제고 구제하지 못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에 낄 구멍이 없다고 한다. 당연한 말로 시작이 그리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처음 계획이 잘못되면 결과는 실패한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과 더불어 나갈 방향을 잘 설정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처럼 평범한 진리에 비결이 있고 미래가 있다. 새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친다. 그저 평범한 원리가 바로 비결이다. 비결이 또한 비전이다. 비전이 없으면 그 생은 망한 것이다. 솔로몬은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멸망한다 하였다.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각자는 저마다 하나뿐인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엄숙하고 진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삶을 살아줄 수도, 나를 남이 대신 살아주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제가 홀로 살 수 밖에 도리가 없는 삶에서 비전은 정신적 기둥이다.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붕괴하듯 사람의 삶도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뽑히지 않는 것은 뿌리가 기둥되기 때문이고,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 마르지 않는 것은 샘에 정신의 영혼이 잠겨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영혼의 물이 맑고 깨끗하면 그 삶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산 물고기는 맑은 흐름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지만 구덩이에서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며 부패한다.

공자는 인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을 원하면 그것이 이른다 하였다. 어렵게 여기면 멀지만 얻고자 하면 수월하다는 말이다. 노자는 신언信言은 불미不美하고 미언美言은 불신不信이라 하였다. 믿을 소리는 아름답지 않고 좋은 소리는 믿을 게 못된다는 뜻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성인은 무엇이든 모아 저축하지 않는다. 있거나 생기면 즐겨 남에게 내놓는데도 제것이 날로 늘어난다면 부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든 남에게 베풀기를 즐기는데도 제것이 풍부해지는 자라면 만석의 부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재물이 물질의 부라면 영혼은 정신의 부가 된다. 물질의 부는 이를 놓고 경쟁하며 싸우지만 정신의 부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도 누가 시기하거나 해꼬지하지 않는다.

하늘의 도는 만물에 혜택을 주어 살리고 나게 하지 위해를 일삼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어떤 수모도 참아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혼의 부를 추구함에 '오불五不'이 있다. 하나는 불미不美이니,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지 않는 것이다. 둘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는 불변不辯이다. 셋은 불박不博으로, 말단의 박식에 빠져 쓸데없이 헤매지 않는 것이다. 넷은 부적不積이다. 탐욕스레 쌓아 독점하지 않음이다. 다섯은 부쟁不爭인데 다투지 않고 사물을 유연히 수용하는 것이다.